

numbers 제 50호



주요 내용

2020. 06.05

1.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2. 1)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2)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3) 넘버즈 컬럼 - "제 결백 발끼세요"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지난 5월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로 우리 사회의 갑질을 폭로한 글이었는데 이 글은 삼시간에 언론을 타고 확산하였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경비원을 ‘머슴’이라 부르고, 경비초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코뼈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의해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건데, 18일 경비원의 육성이 담긴 음성유서가 보도됐다. “○○○씨라는 사람에게 맞으며 약으로 버텼다.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그는 나에게 ‘너 이 XX 고소도 하고 돈도 많은가보다.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 그는 나를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고문을 즐기는 얼굴이다. 겁나는 얼굴!”

우리 사회가 더욱 양극화되면서 앞의 사례같은 아파트 경비원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갑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젠 갑질이 개인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갑질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50호는 우리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한편으로 이번에 이슈가 된 아파트 경비원의 삶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자 한다. 한국 교회가 갑질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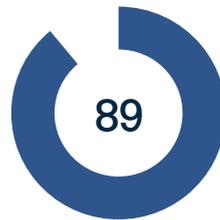
1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우리 국민의 대다수(86%)가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갑질에 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무려 89%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갑질에 대해 앞으로 심각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임

[그림]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



[그림] 앞으로 우리 사회 갑질에 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갑질 국민인식 조사’, 2020.01.12.(전국 만16~69세, 남녀 1,500명, 전화조사, 2019.11.29.~12.04) (4점 척도 질문, ‘매우 심각’과 ‘약간 심각’을 합한 비율임)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갑질 횡포 경험 및 관련 인식 조사” 2017.12.(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8.01)

2 ‘갑질’ 문화에서 ‘갑’ 인물 1위 ‘서비스 이용자/손님’(87%) ‘을’ 인물 1위 ‘아르바이트생’(51%)

- 갑질 문화에서 ‘갑’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보기를 제시한 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서비스 이용자/손님’이 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갑 거래처’ 83%, ‘고용주’ 80%, ‘대기업’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을’ 인물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과 ‘하청 업체’가 같은 51%로 가장 높고, ‘콜센터 직원’ 47% ‘아파트 경비원’ 4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갑’ 인물(상위 5위) (%)



[그림] ‘을’ 인물(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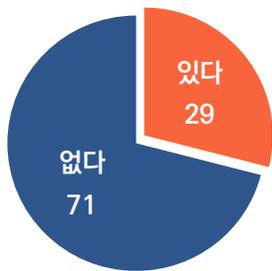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갑질 횡포 경험 및 관련 인식 조사” 2017.12.(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8.01)

3 최근 1년간 '갑질' 당한 경험, 10명 중 3명 꼴

- 최근 1년간 '갑질' 당한 경험은 전국민의 29%로 10명 중 3명 꼴로 조사됨
- 직업별로 갑질 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블루칼라' 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자영업자, 직장인(화이트칼라)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최근 1년간 '갑질' 당한 경험 (%)



[그림] 최근 1년간 '갑질' 당한 경험(직업별) (%)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갑질 국민의식 조사', 2020.01.12.(전국 만16~69세, 남녀 1,500명, 전화조사, 2019.11.29.~12.04)

● 당해본 '갑질', 하대/무례한 행동, 하지 않아도 될 일 시키기, 막말/인격을 모독하는 말 등

- 갑질을 당해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물어본 결과, '하대/무례한 행동' 55%, '하지 않아도 될 일 시키기' 45%, '막말/인격을 모독하는 말' 40%, '괜한 말로 꼬투리 잡기' 4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당해본 갑질 유형(상위 10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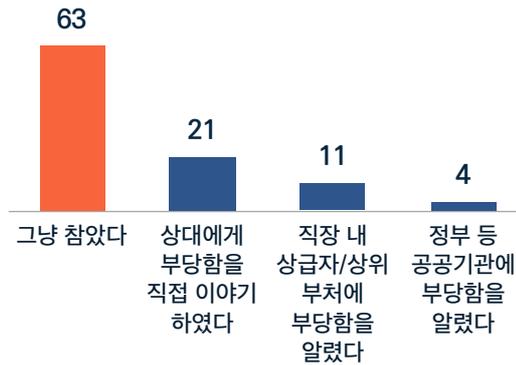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갑질 횡포 경험 및 관련 인식 조사" 2017.12.(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8.01)

● ‘갑질’ 대처 방식, ‘그냥 참았다’ 63%

- ‘갑질’을 당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보았는데, 절반이 넘는 63%가 ‘그냥 참았다’고 응답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갑질’ 대처 방식(갑질 당한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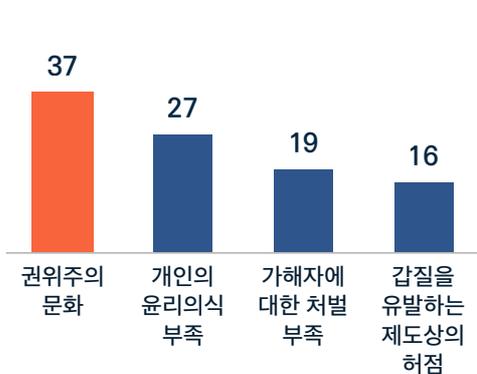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갑질 국민의식 조사’, 2020.01.12.
(전국 만16~69세, 남녀 1,500명, 전화조사, 2019.11.29.~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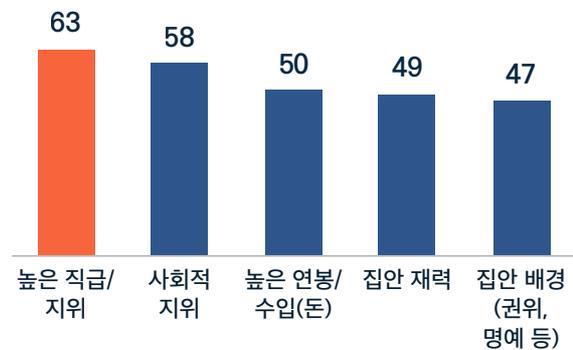
4 ‘갑질’ 발생 원인, 권위주의 문화, 윤리의식 부재 등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

- ‘갑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문화’ 37%, ‘개인 윤리의식의 부재’ 27%로 응답돼, 국민 3명 중 2명 가까이(64%)가 갑질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갑을 관계를 구분 짓는 요소로서는 ‘높은 직급’ 63%, ‘사회적 지위’ 58%, ‘높은 연봉/수입’ 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는데, 재력과 지위에 따라 갑과 을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음

[그림] ‘갑질’ 발생 원인(상위 4위)* (%)



[그림] 갑을 관계를 구분짓는 요소(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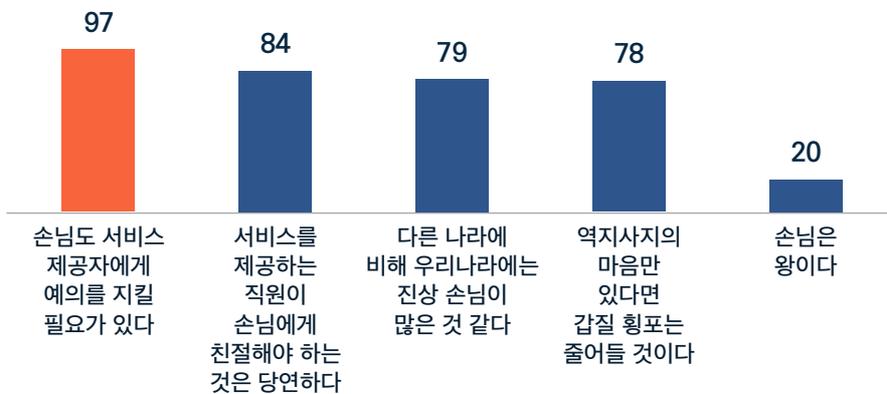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갑질 국민의식 조사’, 2020.01.12.(전국 만16~69세, 남녀 1,500명, 전화조사, 2019.11.29.~12.04)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갑질 횡포 경험 및 관련 인식 조사’ 2017.12.(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8.01)

● 서비스 문화 인식, '서비스 받는 자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 97%

- 우리 국민의 서비스 문화 인식 관련,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20%),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친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84%), 서비스 받는 자 역시 제공자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97%)이 매우 강함
- 이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진상 손님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이 79%나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 받는 자로서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

[그림] 우리나라 서비스 문화 관련 인식('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갑질 횡포 경험 및 관련 인식 조사" 2017.12.(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8.01)

5 갑질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길 원해

- '갑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질문한 결과, '제도 개정 등 적극적으로 개입' 66%, '정부 간섭 말고 자율에 맡김' 20%, '관련 단체 지원 등 소극적으로 개입' 12%로, 대체로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갑질 감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상위 3위) (%)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갑질 국민인식 조사', 2020.01.12. (전국 만16~69세, 남녀 1,500명, 전화조사, 2019.11.29.~12.04)

앞에서 '갑' 인몰 1위는 '서비스 이용자'(87%)이고, '을' 4위는 '아파트 경비원'(45%)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저임금 직종인 '아파트 경비원'의 삶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에서 2019년 11월에 발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해 보았다.

본 조사는 전국 15개 지역 3,388명의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에 진행하였다.

6 아파트 경비원, 근로 계약 기간 '6개월 이하' 31%

-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근로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3개월' 22%, '6개월' 9%로 나타나, 경비원 10명 중 3명(31%)은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을 하고 있어, 고용 불안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 아파트 경비원 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규정 근로 시간 기준 30%, 실제 근로 시간 기준 66%로 추정돼, 아파트 경비원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저임금 직종임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아파트 경비원 근로 계약 기간 (%)



[그림] 최저임금 미만자 추정 비율 (%)



*자료 출처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9.11. (전국 15개 지역 아파트 경비원 3,388명, 2019.05)

● 아파트 경비원, 고유 업무인 방법/안전 점검 업무는 31%에 지나지 않음. 나머지 69%는 비 경비 업무에 치중함

-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 경비원 법에 적용받는 경비원으로서 '방법/안전 점검 업무'는 31%인데 반해, '비 경비 업무'는 69%나 되는데, 이 중 '분리수거'(21%)와 '청소'(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아파트 경비원 업무 비중 (%)



*자료 출처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9.11. (전국 15개 지역 아파트 경비원 3,388명, 20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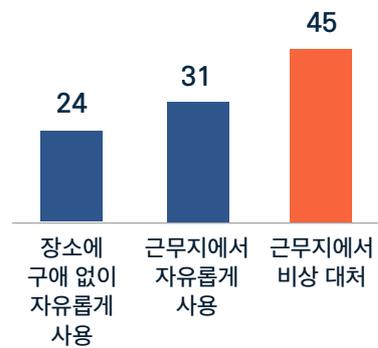
● **규정 휴게 시간은 8.0시간이나, 실제 휴게 시간은 6.2시간으로 1.8시간의 차이를 보임**

- 현재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형태는 하루 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 쉬는 격일 근무제인데, 근무 시간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정도의 휴게 시간을 갖는 기형적인 근무 형태를 갖고 있음
-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 시간을 살펴보면, 규정 휴게 시간 8.0시간인데 반해 실제 휴게 시간 6.2시간으로 실제와 규정 간 1.8시간의 차이를 보임
- 휴게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쉬지는 못하고 45%가 비상 대기 상태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음

[그림] 아파트 경비원 휴게 시간



[그림] 휴게 시간 사용 현황 (%)



*자료 출처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9.11. (전국 15개 지역 아파트 경비원 3,388명, 2019.05)

● **휴게 공간, 현 경비 초소를 그대로 사용 40%**

-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경비 초소를 겸용하는 경우가 40%, 별도 휴게 공간이 있는 경우가 60% 정도 됨
- 최근 자살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초소를 보면, 변기 위에 식기와 옷가지가 함께 있는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사진 참조)

[그림] 휴게 공간 사용 현황* (%)



[사진] 최근 자살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근무 초소 ** (변기 위 식기와 옷가지 모습)



*자료 출처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9.11. (전국 15개 지역 아파트 경비원 3,388명, 2019.05)
 ** 경향신문, "변기 위에 식기...무엇이 경비노동자의 이런 공간을 낳았나" 2020.05.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10600015#csidx15c0c3d8b4940afa457c478a95afe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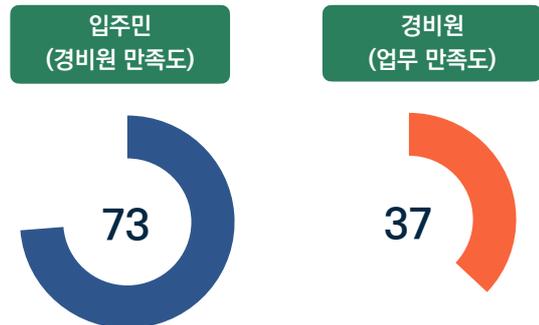
● 입주민한테서 ‘갑질’ 당한 경험 24%

- 입주민한테서 비인격적 대우를 당한 적 있는 지 물어본 결과, 4명 중 1명 정도(24%)가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함
- 경비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입주민이 경비원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73%로 상당히 높는데, 정작 당사자인 경비원은 자신의 경비 업무에 대해 37%만 만족하는 역설을 보임

[그림]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 받은 경험 (%)



[그림] 경비원 만족도(경비원 vs 입주민) (%)



*자료 출처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9.11. (전국 15개 지역 아파트 경비원 3,388명, 2019.05) (5점 척도 질문,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임)

7 경비원의 목소리

“1년짜리보다 6개월, 3개월로 하면 다루기 싫다고 관리소장이 말한다. 3개월은 경비를 옮겨매기 위한 걸로 보인다.”

“야간 순찰을 하다 보면 술 취한 입주민이 폭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승강기 고장났을 때 인터폰으로 고성과 욕설을 하기도 한다. 추석 설 명절 때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제일 많다. 주차장 문제(이중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분리수거를 경비원이 해야 한다고 하고, 밤 12시 이후에 출입문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민이 주차단속에 불응하며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한다.”

“휴게시간은 6시간 30분인데 실질적으로는 3시간 30분밖에 안 된다. 특히 야간에 두 차례 약 20분씩 순찰이 이루어지는데 순찰 시간대가 매일 바뀌는 체제라서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어 많이 힘들다. 야간에 술 취한 입주민 소동, 늦은 시간 택배 수령으로 쉬기 어렵다.”

“아파트 갑질 발생할 때마다 경비는 혼자 이겨나가야 하는데 하소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이익을 당할 때 해결창구가 없어서 아쉽다. 경비를 생계로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료 출처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9.11. (전국 15개 지역 아파트 경비원 3,388명, 2019.05)

8 시사점

갑질은 왜 생길까?

정한울과 조계현의 ‘한국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2019)에 따르면 갑질은 ① ‘갑’과 ‘을’사이의 권력 비대칭 관계에서, ② ‘을’이 ‘갑’보다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고, ③ ‘을’이 자신의 기본적인 이익을 위해 ‘갑’의 자의적인 간섭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을)이 더 우월한 지위를 지닌 사람(갑)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실패,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하청 기업의 수주 불안 등 우리 사회의 불안해진 경제적 현실로 인해서 ‘을’은 ‘갑’의 횡포를 늘 염두에 두고 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갑질은 더 자주 일어나고 심해진다.

갑질은 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폭언 등 막말을 하는 등 인격적 모욕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4쪽). 그래서 갑질은 ‘을’에게 심각한 자존감의 손상을 입히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사회적 신뢰도를 낮춰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

아파트 경비원의 이야기로 가보자. 아파트 경비원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이다. 이번 자살 사건은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버티지 못하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크리스천 중에도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갑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들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나.

먼저, 인식의 개선 교육이다.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으로,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우린 분명히 그렇게 배웠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를 넘어 신앙의 문제이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여 교육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번 호 칼럼 필자인 남기업 대표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라고 지칭하면서(17p), 크리스천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식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활동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그 나라의 배려 관련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나의 자녀에게 남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질문에 ‘예’ 응답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회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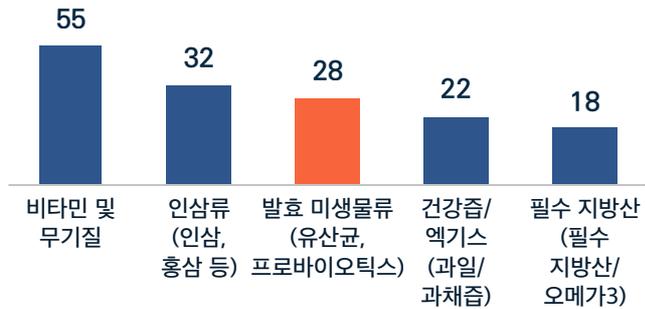
코로나 발생 이후 우리 국민, '건강 기능 식품 섭취 많아졌다' 78%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인체 면역 기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감염율이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인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우리 국민 5명 중 4명 정도(78%)가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섭취량을 늘린 건강기능 식품으로는 '비타민 및 무기질'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삼류' 32%, '발효 미생물류' 28%, '건강즙/엑기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면역력 관련 건강 기능 식품 섭취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그림] 코로나19 발생 후 건강기능식품 섭취 많아졌다(그렇다' 응답률) (%)



[그림] 코로나19 발생 후 섭취량을 늘린 건강 기능 식품 (중복 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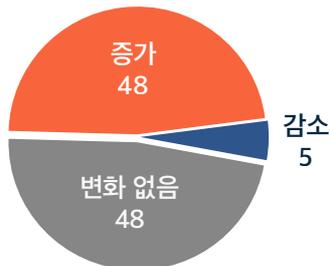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소비 분야 영향 분석' 2020.5.20. (전국 성인 식품 주 구입자 20~50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3.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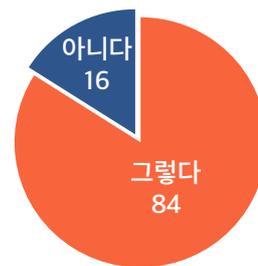
● 우리 국민 2명 중 1명, 코로나 영향으로 '가족과 식사 늘었다'

-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과 식사 횟수 늘었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는데, 외출 자제와 외식 감소 등의 이유로 가족과 식사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국내 농식품의 생산 및 자급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84%인데 그만큼 식료품 수급의 불안 심리로 인해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과 식사 횟수 변화** (%)



[그림] 코로나19 이후 '농식품의 국내 생산 및 자급이 중요하다'(응답률)*** (%)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소비 분야 영향 분석' 2020.5.20. (전국 성인 식품 주 구입자 20~50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3.11.-16)

**감소는 '매우 감소+약간 감소', 증가는 '매우 증가+약간 증가' 수치임.

***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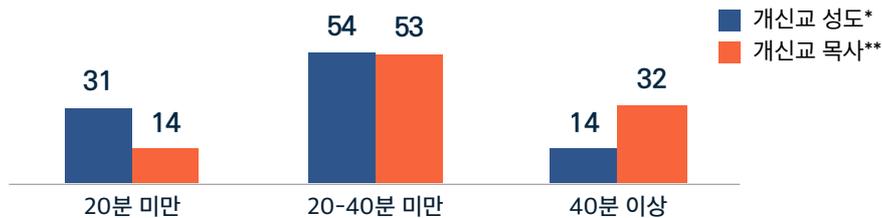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2

미국, 설교 시간에 대해 목사와 성도 간 인식 차이 크다!
‘40분 이상 설교한다’에 목사는 14%, 성도는 32%

-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에서 목사의 설교 길이에 대해 성도와 목사의 인식을 조사 했는데, 그 결과,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 대해 ‘40분 이상 설교한다’에 14%로 응답한 반면, 성도는 ‘출석 교회 목사가 40분 이상 설교한다’에 32%로 응답하여 성도가 목사보다 설교 시간에 대해 더 길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조사를 실시한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두 그룹 간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유로, 성도의 경우 설교 외에 목사의 성경 봉독, 구원 초청(Altar call) 등의 시간을 모두 설교 시간으로 인식하여 목사보다 설교 시간을 훨씬 길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림] 설교 시간 인식(개신교 성도 vs 개신교 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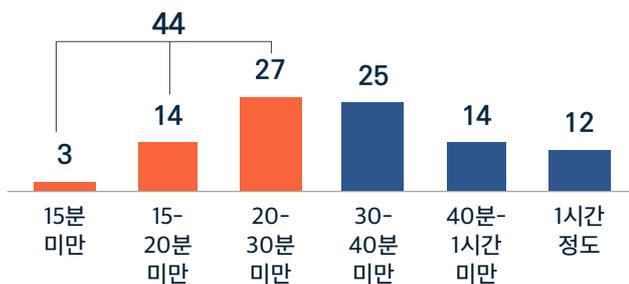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Lifeway Reserch, 'Pastors' Views on Sermon Length', 2020.05.13.(미국 전체, 개신교 목사 1,000명, 전화 조사, 2019.08.30.-09.24)
 **자료 출처 : Lifeway Reserch, 'Protestant Churchgoer Views on Sermon Lengths', 2020.05.13.(미국 전체, 개신교 성도 1,002명, 온라인 조사, 2019.09.20.-27)
 *** 구원 초청(altar call)은 미국 부흥 집회 등에서 주로 사용했는데, 현재 나사렛교단 등에서 예배 시간 내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단의 시간, 복음으로 부름 등으로 불린다.

● 미국 개신교인의 선호하는 설교 시간, ‘20-30분 미만’이 가장 높아

- 미국 개신교 성도가 선호하는 설교 시간은 ‘15분 미만’ 3%, ‘15-20분 미만’ 14%, ‘20-30분 미만’ 27%, ‘30-40분 미만’ 25% 등으로, 44%의 개신교인이 30분 미만의 설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현재 설교시간에 대해 개신교인 중 55%가 만족하고 있지만, 27%는 현재 설교가 길다고 응답했고, 13%는 설교가 짧다고 응답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좀 더 짧았으면 하는 의견이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미국 개신교 성도 선호하는 설교 시간 (%)



[그림] 미국 개신교 성도 현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자료 출처 : Lifeway Reserch, 'Protestant Churchgoer Views on Sermon Lengths', 2020.05.13.(미국 전체, 개신교 성도 1,002명, 온라인 조사, 2019.09.20.-27)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코로나 이후 가족유대감 증가, 가정폭력/이혼 감소](#)

조선일보_2020.06.02.

[코로나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조사](#)

매일경제_2020.05.29.

[코로나 100일 온라인 쇼핑 변화...고기·침구 많이 사고 화장품·학습서 줄었다](#)

중앙일보_2020.06.03.

[직원 대신 키오스크 '점령'...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진다](#)

세계일보_2020.06.01.

[AI공학자/사회경제학자 등 조사 : AI시대 직업 예상](#)

세계일보_2020.06.03.

[高3 "을 입시 재수생보다 불리... 극복 불가능"](#)

조선일보_2020.06.03.

[OECD의 '2020 삶의 질' 보고서, 한국의 행복도](#)

한겨레_2020.06.01.

[복지부 '2020자살예방백서' 발표, 돈·건강 때문에... '극단 선택' 내몰린다](#)

세계일보_2020.06.01.

[21대 국회에 하고싶은 말 "싸우지 말고 협치](#)

연합뉴스_2020.05.29.

스토리가 있는 기사

[아파트경비원 자살과 교회의 역할](#)

가톨릭신문_2020.05.24.

[언택트라는 환상](#)

한겨레_2020.06.02.

["코로나19 백신 개발 최소 3년 걸릴 것"](#)

중앙일보_2020.06.01.

넘버즈 칼럼

“제 결백 받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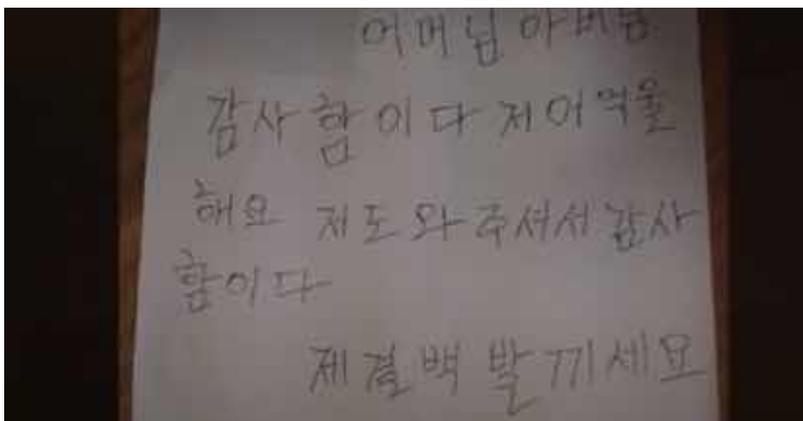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코지난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억울하다고 자살을 했다. 아파트 주차 갈등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구타를 당해 코뼈가 부러졌는데, 사과는커녕 그만두라고 협박까지 당한 것이 직접적 이유였다.

그가 쓴 짧은 유서를 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 전체 31자로 작성된 유서엔 맞춤법이 틀린 글자가 꽤 있었다. 그 유서는 “제 결백 받기세요”로 끝맺고 있었다. 가난하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데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 없음을 죽음으로 증명해 보이려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의 비극적 죽음이 알려지자 그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청와대에 청원서까지 올렸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 경비원은 입주민을 위해서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그 아파트에서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자인 입주민은 경비원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고, 심지어는 “우리 애들 10명 풀어서 땅에 묻어줄까”라고 협박도 했다고 한다. 청원서를 쓴 입주민은 가해자에게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 징역형을 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인지 결국 그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강북 모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유서.(출처: YTN Youtube 갈무리)

‘갑질’은 가난의 문제다

우리는 이 비극을 전형적 갑질이 낳은 결과라고 말한다. 그런데 입주민과 경비원은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다. 경비원에 대해서 입주민은 ‘슈퍼 갑’이다. 왜냐면 입주민들이 경비원에 대해서 안 좋은 민원을 관리 사무소나 경비 회사에 제기하면 그의 직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갑질을 당하면 그만두면 되지, 왜 경비원을 계속하냐’고. 생계 때문이다. 경비원은 주로 노인이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8%(2017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렇

다. 가난하기 때문에 갑질을 당해도 경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그 경비원의 자녀들의 삶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취직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서로 보건대 다른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자살의 배후엔 가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그는 배우지도 못했다. 만일 그가 평균 정도의 교육 수준과 경비원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주기적으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갑질이 작동할 수 없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적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을’에 위치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갑’에 위치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관계적 존재인 인간은 수평적 관계에 있을 때라야 다른 사람과 참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만남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삼성 이건희 회장 개인의 최대의 불행은 타인과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성경이 말하는 갑질 청산의 대안, 희년

갑질 청산의 대안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시내산 ‘율법’에 들어 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율법의 정점에 위치한 ‘희년’이다(레위기 25장).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하고 있는 희년 제도의 목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종에게 7일에 하루를 쉬게 한 것은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조치다. 7년에 1번씩 부채를 탕감하고 종을 해방하는 것(신명기 15장) 또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주인과 종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7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인 희년이 되어 어쩔 수 없어서 팔아버린 토지를 되돌려 받는 것은, 갑을 관계의 전형인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갑을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려는 성경의 대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출 34:6 中 현대어 성경)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지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불쌍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구조를 고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필자는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4년 동안 아파트 회장을 두 번 역임했다.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왜 마을 일엔 관심을 두지 않냐는 지인의 충고가 마음을 찢어 시작한 아파트 회장 첫 2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 나를 제외한 대다수의 동 대표들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불법적 해임 투표를 3번 씩이나 강행했고, 매달 1~2회 열리는 회의 때마다 온갖 욕설과 폭력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으며, 고소·고발을 무려 15번이나 당했다. 투명성과 상식으로 아파트를 운영하려고 했던 필자를 부담스럽게 여겼고, 나아가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과 비리를 바로잡을 것을 두려워 했다. 2년 동안 그들을 향해 저주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모른다. 회장 자리를 권유한 지인에 대해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깨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도움으로 2년을 무사히 버틸 수가 있었다.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자를 괴롭혔던 동 대표들이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했고, 두 번째 회장 2년 동안은 뜻이 맞는 입주민들과 함께 아파트를 개혁하는 일을 했다. 두 번째 2년은 신나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경험의 시간이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있었던 경비원의 자살

첫 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동 대표 중 '몸통'은 '직업이 동 대표'였고, 이미 우리 아파트에서 여러 번 회장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아파트의 모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었다. 40명에 가까운 우리 아파트의 유급 직원들은 그에게만 잘 보이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가 갑이었고 아파트의 관리소장 이하 전 직원들은 '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몸통'과 가까운 직원일수록 관리·경비·청소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그에게만 잘 보이면 직위를 유지하고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리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몸통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지만 입주민에 대한 경비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었던 한 경비원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같은 조 경비원을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힘없고 열심히 일하는 경비원을 괴롭히고 주민들에게 형편없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몸통의 비호 때문이었다.

이런 시스템, 즉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질서를 나는 두 번째 회장 임기 때 뜯어고쳤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무조건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의 성격을 면밀히 따져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물론 이렇게 해도 질이 안 좋은 입주민이 있어서 경비원들이 고충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갑질하는 입주민은 많이 줄어들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에서 사고가 종종 난다. 경비원의 자살, 관리소장의 비리, 아파트 회장의 관리비 횡령 등. 그런데 이런 일에 입주민들은 잘 나서지 않는다. 누군가 비리를 저지르고 갑질을 하는 건 알지만 말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파트에 비리가 판을 치고, 심지어 자살하는 끔찍한 사고까지 일어나는 까닭은 상식적인 주민들, 특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 경험으로, 기도하는 사람 2~3명만 동대표가 되면 아파트는 바뀔 수 있다. 한계는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양산해 내는 구조를 고칠 수 있고, 아파트의 공동체성도 활성화할 수 있다. 내가 사는 마을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스며드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할까?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억울한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다. 수평적 만남, 참된 만남으로 충만한 사회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인들이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사는 아파트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가깝게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한 경비원이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면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근무자 중에는 자살을 고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의 영성은 그런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이 글은 기윤실이 발행하는 '좋은 나무'(2020년 5월 28일)에 게재한 글입니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